246

한국 경제사

I

한국인의 역사적 전개

이영훈 지음

일조각

한국경제사 I

한국인의 역사적 전개

HANOI UNIVERSITY OF INDUSTRY
KOREAN DEPARTMENT

한국 경제사

I

한국인의 역사적 전개

이영훈 지음

TRƯỜNG ĐẠI HỌC CÔNG NGHIỆP HÀ NỘI
TRUNG TÂM THÔNG TIN THƯ VIỆN
- 07 07
04566

일조각

머리말

이 책은 2003년 어느 출판사와의 계약으로 쓰기 시작하였다. 한국경제사 강의에 적합한 교과서를 집필해 달라는 부탁이었다. 내가 보기에 그때까지 알려진 몇 종의 교과서는 연구자 사회가 공유하는, 오래전부터 내려온, 도식에다 사실을 끼워 맞춘 수준을 넘지 않았다. 사실의 인과 연쇄로 한국경제사의 전체적 흐름을 실증적으로 추구한 교과서나 개설서는 없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 이전 대략 20년간 나는 주로 한국의 토지제도, 농민, 노비의 역사를 연구해 왔다. 이 분야의 3~19세기에 걸친 역사를 내 나름의 시각으로 구명한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나는 출판사가 새로운 교과서의 집필을 제안해 오자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여겼다.

나의 집필 계획을 들은 교토京都대학의 호리 가즈오堀和生 교수는 일본에서는 어느 개인이 통사를 쓴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였다. 나는 그 말이 옳다고 여겼다. 그렇지만 한국과 일본의 학계는 축적된 연구성과의 폭이나 깊이에서 많이 다르다. 일본에서 경제사의 통사적 흐름은 오래 전부터 잘 정리되어 있지만, 한국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그런 상태에서는 개별 시대나 사건에 대한 전문적 논문쓰기가 더 이상의 진전을 보기 힘들 뿐 아니라 혼란만 가속시킨다. 누군가는 무리를 해서라도 통사적 서술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나는 그러한 각오로 출판사의 제안을 받아들인 뒤 집필에 착수하였다. 그로부터 1년 뒤 지금 이 책의 대략

1/3 분량으로 원고가 완성되었다. 그렇지만 나는 그 원고의 출판을 포기하였다.

책이나 논문을 쓰는 사람은 자주 경험하는 일이지만, 집필에 착수하기 전의 지식과 집필 도중의 지식과 집필 후의 지식은 상이하다. 연구자는 집필과정에서야 자기가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를 깨닫는 경우가 많다. 1년간의 집필 뒤 나는 그때까지 내가 구축한 한국경제사의 체계가 얼마나 큰 공백을 안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다. 상당히 많은 주제가 새롭게 연구되어야 했다. 당연해 보이는 것들에도 상호 조정이 필요했으며, 거기에는 풍부한 상상력이 요구되었다. 출판을 포기한 나는 새롭게 발견한 주제들에 관한 논문을 쓰기 시작하였다. 그중의 몇몇은 학술지에 발표되기도 했지만, 그럴 여유를 갖지 못해 초고의 형태로 지금까지 간직해 온 것도 적지 않다. 이 책의 제2~4장에서 피력된 신설이랄까 연구자들에게 생소한 주장의 상당 부분은 그 초고들에서 옮겨 온 것이다.

내가 초고의 출간을 포기한 또 한 가지 이유는 그 시기를 전후하여 그때까지 한국경제사에 관한 나의 이해를 크게 바꾸어 놓을 만큼 나를 포함하여 동료 연구자들의 새로운 연구가 급하게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2004년 나는 공동연구서 『수량경제사로 다시 본 조선후기』를 출간하였다. 같은 해에 『조선시대사학보』란 학술지에 나의 지론인 '19세기 위기론'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를 계기로 17~19세기 경제사에 관한 나의 이해 수준이 일신하였다. 때를 같이하여 낙성대경제연구소에 모인 동료 연구자들이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18~20세기의 각종 경제통계를 수집, 정리, 추계하는 공동연구에 착수했으며, 그 최초의 성과로서 2006년에 『한국의 경제성장 1910-1945』를 출간하였다. 이 책을 계기로 일정기日政期 경제사에 관한 연구수준이 비약적으로 높아졌다. 내가 출판사와의 계약에 따라 완성한 원고에는 이들 새로운 연구성과가 포함되었다. 그에 따라 불가피하게 15~16세기나 다른 시대의 경제사 서술과의 비

교에서 질적 격차와 불균형이 발생하였다. 나는 교과서가 아니라 한국사 전 시대의 경제사를 균질의 수준으로 서술하는 고급의 연구서를 집필하기로 마음을 바꾸었다.

이 책의 서술 방법이나 범위를 당초의 계획과 다르게 만든 또 하나의 큰 계기는 2004년부터 본격화한 한국 현대사를 둘러싼 논쟁이었다. 당시 노무현정부는 몇몇 역사학자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친일파의 명단을 작성하거나 강제동원의 진상을 규명하고 보상하는 작업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그를 위한 몇 종의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나는 제대로 연구도 되지 않은 사건을 정치권력의 힘으로 규명하거나 청산, 보상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 같은 나의 입장은 이 책의 관련 부분에서 서술했듯이 지금도 변함이 없다. 어쨌든 나는 그를 둘러싼 찬반 논쟁에 깊이 개입하였다. 그 과정에서 나는 대한민국이란 이 나라가 한국인의 긴 문명사에서 어떠한 역사적 위상을 지니는가라는 문제를 난생 처음으로 진지하게 따지기 시작하였다. 외국인이 들으면 좀 이상하게 느끼겠지만, 나는 그때까지 나이 50이 넘도록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크게 의식하지 않았다. 내가 대학원에 다닐 때만 해도 경제사학을 포함한 역사학계는 아시아 공산혁명의 이론인 식민지반봉건사회론植民地半封建社會論의 관점에서 대한민국을 비판하거나 부정하곤 하였다. 그 이론의 적실성은 한국경제가 고도성장을 거듭함에 따라 소멸한 지 오래이다. 그럼에도 학계는 대안적 인식의 마련에 소홀하였으며, 나 역시 19세기 이전의 경제사 연구에 몰입하였던 연고로 2004년까지 그 문제에 관한 한 지적 공백이나 다를 바 없는 상태로 지내 왔던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 나의 격렬했던 논쟁사는 나로 하여금 20세기의 한국사를 설명하는 틀로서 '문명사의 대전환'과 '복선의 전환'이란 명제를 발견하게 만들었다.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서유럽에서 발생한 근대문명이 이식되는 대전환의 과정이었다. 대한민국은 일본이 이식한 근대문명을 계

수繼受하여 건립된 국가이다. 그렇지만 이식의 과정은 그에 편승하여 전통문명이 스스로를 재편성하거나 완성해 가는 복선의 과정이기도 하였다. 나는 이 같은 관점에 입각해야 대한민국의 성립은 물론 1960년대 이후 고도성장의 역사까지 온전하게 설명할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적지 않은 오해가 있었지만, 나에게서 현대사 논쟁은 나의 전통시대에 관한 연구를 21세기 초 오늘날과 관련짓는, 거기에다 실천적 의미를 부여하는, 지적으로 극히 생산적인 경험이었다. 당초 계획한 이 책의 서술 하한은 1950년대였다. 그것이 위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1960년대 이후 고도성장의 역사까지, 나아가 1997년 이후 감속성장의 시대로까지 연장되었다.

지난 10여 년간에 걸친 이 책의 저술은 그렇게 서술의 목적, 수준, 범위, 방법을 조금씩 구체화하는 과정과 궤를 같이하였기에 여러 차례의 개고와 조정을 거듭하였다. 한국사에서 문명이 동튼 그 시대부터 21세기 오늘날까지 각 시대를 분주하게 오르내리면서 이 책이 과연 끝을 볼 수 있을까라고 회의한 적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어쨌든 나름의 수준과 균형을 갖추었다고 여겨지는 가운데 지금 이 순간 출간을 위한 머리말을 쓰고 있으니 천우신조인가도 싶다. 무엇보다 큰 도움은 돌아가신 부모님과 나의 조상으로부터이다. 과중한 노동을 버틴 그런대로 쓸 만한 체력은 오로지 내가 이 책을 통해 그 얼굴을 찾아 헤맨 조상님의 은택이다.

이어서 원고를 읽고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차명수, 주익종, 김재호, 이우연 교수는 방대한 원고를 모두 읽고 논리적 모순과 시정 방향을 지적해 주셨다. 오사카大阪의 간노 슈이치菅野修一 선생은 평생의 지인인데, 이 책 1권의 원고를 꼼꼼하게 읽은 다음 고치거나 보완할 점을 환기해 주셨다. 김낙년, 박기주, 정안기, 박이택, 박환무 교수는 각자의 전공 영역에서 나의 오해와 불완전한 지식을 일깨워 주셨다. 정향진 교수는 제2장을 읽고 이 책을 관통하는 가족, 세대, 세대

복합체의 실체와 정의에 관해 매우 유익한 교시를 베풀었다. 조우현 교수는 제12장을 읽고 출산율의 급속한 감소에 따라 예상되는 인구감소의 추세에 관한 언급이 없음을 따졌다. 이외에 이제민, 정성기 교수, 유광호, 류상윤 박사, 이근경 전 재경원차관이 내가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적절한 비평을 보내왔다. 박사과정의 도민영은 제2권을 읽고 곳곳에 노출된 나의 거친 표현이 지닐 위험성을 상기해 주었다. 2014년 11월 한양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는 채 완성도 되지 않은 나의 원고를 두고 토론회를 열었다. 동 연구소의 임지현, 윤해동 교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그 토론회에서는 윤선태, 염정섭, 강진아, 우대형 교수가 나의 미완성 원고를 따갑게 비판했는데, 그것들은 이 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삼양사의 김재억 감사는 나의 집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아무런 조건 없이 연구비를 지원해 주셨다. 뜻밖의 후의라 더없이 감사하였다.

곧이어 나는 정년을 맞아 대학을 떠난다. 돌아보니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학부와 대학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 바가 별로 없다. 그럼에도 서울대학교는 나에게 좋은 연구 환경을 제공하였다. 학부의 동료 교수, 학부장, 학장, 총장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일조각은 한국사 연구를 주도한 연구서를 출간해 온 유서 깊은 출판사이다. 졸저의 출간을 맡아 주셔서 감사드린다. 편집부의 강영혜 대리와 이주연 씨는 번거로운 편집과 교정에 성의를 다해 주셨다. 낙성대경제연구소의 박환무, 이우연, 김양태 박사, 최현선 행정실장은 자료와 교정에 관한 나의 번거로운 주문을 잘 참아 주셨다. 여러모로 여러분께, 그리고 이 세상에, 신세만 지고 살았다. 이 책이 약간의 보답이라도 될 수 있으면 좋겠다.

2016년 10월 24일

이영훈

차례

머리말 — 5

제1장
한국경제사의 방법

1. 연구사의 회고 — 21

세계사의 일원적 법칙 21 | 맞지 않는 잣대 24 | 부풀려진 역사 27
범주착오 29 | 오렌지밭에서 사과를 31 | 맹아론의 정치학 34
현실로부터의 유리 36

2. 무엇을 쓸 것인가 — 39

경제에의 시선 39 | 인구와 환경 42 | 가족과 소농 44 | 소유와 신분 46
지배와 통합 47 | 신뢰와 협동 49 | 운명의 갈림 51 | 지경학 53
한국형 시장경제 55

3. 새로운 시대구분 — 57

몇 개의 변곡점 57 | 제1시대: 기원전 3세기~기원후 7세기 58
제2시대: 8~14세기 59 | 제3시대: 15~19세기 61
제4시대: 20~21세기 63

제2장

문명의 아침

1. 선사시대의 한반도 ····· 67

정주취락의 전개 67 | 복합사회의 대두 73 | 역사시대로의 이행 79

2. 연烟의 성립 ····· 85

미사리유적 85 | 부뚜막의 확산 89 | 국연國烟, 간연看烟, 적성연赤城烟 91

3. 족장사회 ····· 93

락落 93 | 읍락邑落 96 | 국國 102 | 노奴의 질서 107

국國은 족장사회族長社會 112 | 열린 한반도 113

4. 국가의 출현 ····· 119

부체제部體制 119 | 대왕大王의 등장 121 | 지배체제 127 | 생태와 식료 132

권농과 진휼 135

제3장

공연孔烟에서 정호丁戶로

1. 7세기 말의 농촌 ····· 137

신라촌장적 137 | 촌 143 | 인구 149 | 가축과 목류 152 | 전답 157

공연 160 | 계연 163 | 가족과 부부 166 | 노비 170

2. 정丁의 성립 176

정전丁田의 지급 176 | 개선사석등기 179 | 정호丁戶의 발견 183
왕토주의의 동향 185 | 통일신라의 지배체제 189

3. 통일신라의 사회 192

귀족과 사원의 전장 192 | 욱면과 지은 194 | 용작 197
「화랑세기」의 세상 200 | 바다의 신라인 204

제4장
국인國人과 전호佃戶

1. 집권적 지배체제의 전개 209

인품의 조정 209 | 공전과 사전 211 | 조의 수취 214 | 부와 역의 수취 217
전시과의 진전 219 | 녹봉제의 실시 222 | 전호의 성립 228
사유지설 비판 232 | 토지금령 237 | 개경과 국인 241

2. 농민과 사회 247

정호丁戶 247 | 가, 친족, 백정 253 | 주첩 259 | 군현과 촌리 263
노비법제 266 | 노비의 이미지 271 | 시장과 고리대 274 | 권농과 진휼 275

3. 원 복속기의 사회와 경제 277

대몽골 울루스 277 | 지방세력의 해체와 이동 282 | 녹과전의 분급 283
양전방식의 변화 285 | 1/10 수조율의 성립 288 | 3가 1호제 292
이성계호구주장 295 | 고려 말기의 사회상 299

제5장

유교적 전환

1. 조선왕조의 창업 305

역성혁명의 배경 305 | 집권체제의 정비 309 | 중화세계로의 편입 311
바다가 닫히다 313 | 여성의 종속 316

2. 국전제의 재편 319

과전법의 시행 319 | 과전법의 이념 322 | 매매와 상속의 공인 325
전부佃夫의 성립 330 | 전국적 농업생태 333 | 『농사직설』의 간행 336
양안 338 | 공법의 개정 342 | 사전의 소멸 345

3. 지배체제의 이원화 347

15세기 초의 호 347 | 호구제도의 개혁 353 | 보법의 좌절 355
양역의 성립 357 | 호적 359 | 조선 호적의 비교적 특질 362
이행의 귀결 365

4. 양반과 노비 366

농촌양반의 등장 366 | 농장 369 | 안호정의 풍류 373 | 노비인구의 팽창 377
이류異類 380 | 입역노비와 납공노비 384 | 노예제사회인가 387

5. 경제체제와 사회 392

농본주의적 통합 392 | 공물·선물경제의 확장 398 | 주비 403 | 향도 406

제6장

소농사회

1. 시장경제의 대두 409

대항해시대의 파도 409 | 중계무역의 성황 412 | 동전의 유통 417

장시의 확산 420 | 물가변동 425 | 미곡시장의 통합 428
관영수공업의 재편 431 | 농촌수공업의 실태 434

2. 소농경제의 전개 437

이앙의 보급 437 | 집약농법과 상업적 농업 439 | 노비제의 해체 442
분쟁의 시대 448 | 전부에서 기주로 451 | 토지소유의 동향 455
병작의 양상 459 | 지주제는 있었는가 464 | 허상으로서 자본가적 부농 469

3. 소농사회의 양상 475

주호와 협호 475 | 순환과 이동 482 | 리里의 재편 484 | 8결작부제 487
비교사회사 491 | 갈등과 협력 496

4. 국가적 재분배경제 501

대동법 501 | 균역법 505 | 환곡 509 | 균안均安의 정치경제학 513
중앙재정과 한성부 515 | 시전체제 521 | 인격적 거래 526 | 정지된 시간 531

제7장
위기

1. 19세기의 정체 535

반전하는 역사상 535 | 산림의 황폐 538 | 미곡 생산의 감소 544
무역의 동향 549 | 장시의 위축 553 | 국가적 재분배경제의 해체 556
민란의 물결 559 | 사창제와 호포제 562

2. 제국주의의 도래 565

개항을 둘러싼 국제질서 565 | 교린외교와 만국공법의 갈등 568
종속의 재배치 573

3. 1880년대의 혼돈 576

정부재정의 악화 576 | 당오전의 발행 578 | 왕실재정의 팽창 579
시전상인의 피폐 584 | 농촌사회의 분열 586

4. 대외무역의 전개와 전통경제의 재편 591

대외무역의 동향 591 | 농업생산의 회복 597 | 면직업의 해체 599
지주계급의 발흥 602 | 국내시장의 확대와 통합 605
은행과 회사의 출현 608

5. 황혼의 대한제국 612

갑신정변, 동학농민봉기, 청일전쟁 612 | 갑오경장의 좌절 616
중도반단의 개혁 618 | 대한제국의 성립 621 | 초라한 정부재정 624
황실재정-궁내부와 내장원 628 | 황실재정-궁방과 별고 631
마지막 양전 636 | 시주時主로의 종착 641 | 새로운 호적 648
원호와 협호 652 | 빈약한 협력 657 | 남은 상공업 661

참고문헌 667

찾아보기 688